

Appendix 4. 의료시스템과학 교육의 정착과 체계화를 위한 필요사항

개념	필요사항
1. 정의 및 구성요소에 대한 명료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의료시스템과학’의 정의, 범위 등에 대한 명료한 정의 - 의료시스템과학의 각 하위요소들이 현재 한국 의과대학 상황에 맞는지 검토 - 핵심 개념과 내용을 명확하게 하며, 관련 교과목 및 과정에서 교육하고, 교수에게 관련 개념을 교육 - 제시된 교육내용과 수준(스코프와 씨퀀스)이 의과대학 교육에 적합한지? 적합하다면 각 영역과 내용이 어느 시기에 적절한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논의
2. 교육과정 체계와 편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찰, 경험, 실습을 위한 시간 확보 - 의과대학 교양 과목을 1, 2학년에 국한하는 상황을 바꾸어야 함. - 기초의학, 임상의학, 의료인문학의 통합이 불가피하므로 융합된 업무체계 방안 개발이 필요함. - 의료시스템 관점에서 교육과정 점검: 별도 교과목 개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의료시스템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교육과정에서 의료시스템과학을 성과로 설정하는 방안, 즉 현재 교육내용을 의료시스템과학 관점에서 정리하고 누락된 부분을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실무적인 작업 - 어느 과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는가? 예방의학/의료인문학 관련 교수 자원으로는 체계적 교육과정 개발이 제한적이며, 임상교수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함.
3. 교수개발 및 학습자 사전 준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수와 학생이 의료시스템과학에 대해 이해하고 실천하는 의지를 갖도록 하는 것 - 의학교육 관계자(교수/직원/학생 등)의 의료시스템과학에 대한 필요성 인식 증대, 전문가 양성 후 점진적 교육과정 확대 - 교원 역량 개발(교수개발, 보조요원 훈련 등), 인식 개선(의료시스템과학,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의 역할에 대한 성찰)을 위한 다양한 활동(강연, 워크숍, 심포지엄 등) - 교육내용 개발(교육자료 도입 및 개발)과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 자체 연구, 교육성과를 분석하고 피드백하는 방안, 특히 다양한 직종의 참여 방안 개발, 전담교원 확보가 시급함.
4.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동기부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국내 의과대학 교육과정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현실적 제한이 매우 큼. 평가인증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.